

# 食糧增産對策 수립 근요

## 81年 쌀 不足量 60萬톤 예상

해마다 3백만톤이상의 외곡도입에 의존하여 식량수급의 균형을 꾀해온 우리나라 식량사정은 제 4 차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끝나는 1981년도에 가셔도 감자류, 채소류, 계란류, 海藻類를 제외한 식품은 여전히 공급이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해 맥류와 잡곡의 경우 28만 7천 9백~37만 5천톤(10.9~14.1%), 밀곡의 경우 59만 2천 4백~66만 7천 9백톤(13.8~15.6%)의 공급부족이 예측되어 장기식량수급계획과 식량증산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정부의 제 4 차 5개년계획기간중 정부계획수치인 低位인구성장을 1.4%와 시계열자료에 의한 추정치인 高位인구성장을 1.6% 및 정부계획치인 高位경제성장을 11.4%와 시계열에 의한 추정치인 低位경제성장을 11.1%에 근거를 두어 과거의 시계열 자료에 의한 장기수요예측치는 61~63년의 3개년 평균치를 사용하고 생산의 경우는 64~72년의 9년간 생산자료에 의한 평균치를 사용하여 식품群別 81년

金  
文  
植

(서울農大 教授)

도 식품수요량과 부족량 그리고 열량 및 영양가의 부족량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1981년도 식품수급예측에 있어서 먼저 미곡 생산예측량이 4백 29만 1천 5백톤인데 비해 수요예측량은 4백 83만 3천 9백~4백 95만 9천 4백톤으로 54만 2천 4백~66만7천 9백톤(13.8~15.6%)의 부족량이 예측된다.

### 麥類·雜穀도 모자라

따라서 우리식생활의 主宗인 미곡의 부족현상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더구나 다른식품에 비해 증산이 쉽지않다는점에서 미곡증산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 소비면에서도 비교적 증산이 가능한 맥류나 감자류 등으로 대체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맥류와 잡곡류등의 곡류는 생산예측량이 2백 65만 1천 1백톤인데 비해 수요예측량은 2백 93만 9천~3백톤으로 28만 7천 9백~37만5천톤(10.9~14.1%)의 부족량이 예측되고 있다.

맥류는 2毛作으로 증산이 가능한데도 이처럼 증산부진이 예측되는 것은 지금까지 맥류가격이 낮아 농민들이 맥류생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가격정책의 변화와 다른 증산誘因이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의 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콩類도 생산예측량은 30만 5천 3백톤인데 비해 수요예측량은 47만 4천 9백~50만 5천 9백톤으로 16만 9천 5백~20만 6백톤(55.6~65.7%)의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식물성식품중에서 동물성식품에 손색이 없는 열량과

영양가를 함유하고 있는 콩類는 가격도 동물성 식품에 비해 매우 싸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 증대하리라는 전망이다.

### 肉·계란등은 自給가능

肉類는 생산예측량이 27만5천톤인데 수요예측량은 43만 6천8백~46만 8천 3백톤으로 16만 1천 8백~19만 3천 3백톤(58.8~70.3%) 부족이 예측되고 있다.

육류수요는 소득증대에 따라 크게 증가될것이 예측되므로 본격적인 겸업농가로서 체제를 갖춘 농가생산에 의한 육류증산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인 권장 육성대책의 마련이 요청된다.

이밖에 魚介類도 생산예측량이 약 2백19만톤인데 수요예측량은 약 2백 50만~2백80만톤으로 약 19~34%의 부족량이 예측되나 이는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어선단의 대규모 화등이 뒷받침되면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1981년도의 영양소별 총열량 및 영양가수급 예측에 있어서는 총공급예측량이 3백 14억 8천만 2천 6백킬로칼로리인데 비해 수요예측량은 약 3백 49억 3천 3백만~3백억킬로칼로리로 약11~14%의 부족량이 예측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단백질의 공급예측량은 약 1백 20만 5천톤인데 비해 수요예측량은 약 1백31만 6천~1백 39만 2천톤으로 9.3~15.5%의 부족량이 예측되며 지방질도 공급예측량이 약30만 9천톤이고 수요예측은 약 37만 1천~40만 4천톤으로 20.1~30.9%의 부족이 예측된다.